

# 판타지 드라마에 재현된 정의구현과 폭력의 문화정치학 -〈시그널〉과 〈시공래전〉의 비교를 중심으로

손첸\*

1. 머리말
2. 고통과 책임의 재구성과 폭력 재현의 공통성
3. 폭력의 정치학과 회피 전략을 활용한 문화변용
4. 정의실현의 상상력과 저항의 문화 공감
5.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폭력의 문제적 현실을 다룬 판타지 드라마 〈시그널〉과 그의 중국 리메이크 드라마 〈시공래전〉을 대상으로 드라마에 재현된 각종 폭력과 정의구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서사를 둘러싼 문화의 공통성과 변용에 초점을 맞추어 폭력의 문제적 현실의 근원을 고찰하였다. 제도를 뛰어넘어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가 정의의 부재와 폭력이 난무하는 현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이라는 드라마 서사의 사회적 기능을 탐색하였다. 이를 계기로 권력의 폭력을 재현한 드라마의 분석을 통해 한·중 두 나라에서 문제적 현실 속 권력의 폭력의 근원을 밝히는 비교연구의 공백을 메우리라 기대한다.

---

\*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장기미제사건으로 표현되는 과거의 폭력과 책임의 부재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삶의 고통을 재구성함으로써 구조적 폭력의 문화 정치학을 살펴보면서 억눌려 왔던 대중의 목소리와 당대 사회적 의미를 포착한다. 한·중 두 드라마의 서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문화적 공통성과 회피의 문화적 변용을 고찰하여 어떤 정치적,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탐구한다. 더 나아가 인간성 내면의 특징을 통찰하며 권력의 횡포에 맞선 진실 추구의 깊은 문화적 함의를 밝혀낸다.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라는 판타지를 통한 정의실현으로 현실 속 폭력에 대한 저항의 가능성을 재조명한다. 궁극적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모색하는 데에 한·중의 문화공유와 공감을 재사유하여 공평과 정의를 지향하는 공통의 대안을 구축하고자 하는 시도에 의의를 둔다.

(주제어: 판타지, 〈시그널〉, 〈시공래전〉, 고통과 책임, 폭력, 공통성과 차별성, 회피의 문화변용, 문화정치, 정의구현)

## 1. 머리말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를 이어온 이웃 나라로서 비슷한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걸어왔다. 근현대에 접어들면서 각자 다른 제도를 가진 나라인 만큼 상이한 민주화 과정을 겪어왔기에 오늘날의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관련 드라마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공통성과 차별성을 발견하려는 작업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본 연구는 현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권력형 부패와 사회적 폭력을 다루면서도 판타지를 통한 정의실현을 보여준 한국과 중국의 드라마를 분석하여 그 공통성과 차별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문제적 현

실과 그 근원을 파헤침과 더불어 공통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판타지란 '현실 세계나 일상적인 합법성 속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사건 또는 초자연적 존재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sup>1)</sup> 그런데 문학이나 TV 드라마 속의 판타지는 환상이란 용어와 혼용되면서 의미와 폭이 확장 되는데 환상을 현실과 대립한 것이 아닌 현실로부터의 이탈로 보는 흠의 정의가 대표적이다. 그는 권태로부터의 탈출, 결핍된 것에 대한 갈망, 독자의 언어 습관을 깨트리는 은유적 심상을 통해 주어진 것을 변화시키고 현실을 바꾸려는 욕구<sup>2)</sup>로 환상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넓은 의미의 환상 개념을 동의하면서도 개별적인 의미의 판타지에 집중하고자 한다. 정리 하자면 판타지 서사란 초현실적인 사건이나 인물이 나타나는 이야기인 동시에 수용자로부터 현실을 변화시키고 싶은 갈망을 자극하는 이야기라 할 것이다.

판타지 서사가 실제에서 불가능한 시공간 속에 마련된 세계를 상상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지만 언제나 현실 세계라는 일상성의 기반 위에서 성립한다<sup>3)</sup>는 점에서 현실적이며 부조리와 모순이 넘쳐나는 현실 세계에 대한 은유<sup>4)</sup>로서 저항 및 전복의 특징을 지닌다. 그렇다면 판타지 드라마는 TV 드라마를 통해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구현하는 것으로 초현실적인 세계에서 현실을 마주하는 시청자에게 저항과 극복의 욕망 표출

1) 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환상문학 서설』, 최애영 옮김, 일월서각, 2013, 56쪽, 70쪽.

2) 캐스린 흠 지음,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옮김, 푸른나무, 2000, 55쪽.

3) 양승국, 「생활세계의 경계 허물기와 공감의 소통형식: 판타지 드라마의 미학과 존재론」, 『한국극예술연구』 제58집, 2017, 97쪽.

4) 텔레비전드라마연구회 지음, 『텔레비전드라마, 판타지를 환유하다』, 소명출판, 2020, 12쪽.

로 기능한다. 한국 TV 드라마에서 하위요소로 머물렀던 판타지가 2010년 대 이후 한 장르로 분류되기 시작했다.<sup>5)</sup> 특히 시간여행을 활용한 타임슬립을 소재로 한 판타지 드라마가 속속 등장하면서 대중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sup>6)</sup> 부정사회 속에 억압되거나 소외된 자들의 고통이 양산되는 현실을 탈피하거나 극복하려는 시대적 요구에 맞는 장르가 바로 판타지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장르적 특징을 감안하면 본 연구가 판타지 드라마를 통한 현실 극복의 대안을 모색하려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2010년 이후 TV 드라마에서 판타지가 급부상함에 따라 이를 아우르는 기존 연구도 문학에서 드라마로 확장되면서 다양한 주제가 이뤄졌다. 판타지 개념과 유형을 정리하면서 드라마에 나타난 판타지 양상을 전반적으로 개괄한 박노현<sup>7)</sup>과 백경선의 연구<sup>8)</sup>를 비롯하여 특정 드라마를 대상으로 해석한 폭넓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왔다. 환상성과 상상력<sup>9)</sup>, 시공간 초월<sup>10)</sup>, 초능력 인물<sup>11)</sup> 등 판타지적 요소를 활용한 연구부터 판타지

5) 박정아, 『한국 텔레비전 판타지 드라마의 재-주술화(Re-enchantment)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31쪽.

6) 허은, 「판타지 드라마 스토리텔링의 특성: 판타지 구성요소와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과학』 31권1호, 2015, 9쪽.

7)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환상(성): '환상적인 것'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7권 0호, 2014.

8) 백경선,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판타지의 유형과 의의-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8권 0호, 2018.

9)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55집, 2017; 이명현, 「드라마 <도깨비>의 융합적 상상력과 판타지」, 『문학과영상』 제18권 제2호, 2017; 이승현, 「텔레비전드라마의 국민국가에 대한 전근대적 '판타지」, 『한국극예술연구』 제59집, 2018; 문선영, 「TV드라마의 과학적 상상력-〈M〉, 〈RNA〉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권 0호, 2019.

10) 김다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간여행 모티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박명진, 「텔레비전 드라마 <나인>에 나타난 시간여행의 의미 연구」, 『어문론집』 제59집, 2014; 이신영, 「차원 이동 모티프 드라마 <W〉 연구」, 중앙대학 석사학위논문, 2017; 조미영, 「시간여행의 이중 서사가 갖는 의미 양상 연구-드라마 <눈

의 이데올로기<sup>12)</sup>나 정치적 접근<sup>13)</sup>, 판타지를 통해 타자를 주목하여 차별 해소와 공존 방법을 모색<sup>14)</sup>하는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연구들이 있다. 그 중에서 판타지 드라마에 나타난 사회 정의<sup>15)</sup>나 기억과 고통<sup>16)</sup>에 관한 개별 연구도 있으나 권력의 폭력과 연결시켜 정의실현을 다룬 한·중 드라마의 비교분석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드라마 〈시그널〉을 대상으로 봉인된 기억에 작용하는 미시적 폭력을 밝힌 연구<sup>17)</sup>가 있으나 판타지가 아닌 추리극의 장르적 시각으로 분석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그널〉을 추리 서사로 보고 서사구조와 서사전략,<sup>18)</sup> 플롯과 캐릭터의 변화<sup>19)</sup>를 분석한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 시간성을 주목하

이 부시계》를 중심으로, 『배달말』 65권 0호, 2019.

- 11) 백경선,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과 멜로드라마 캐릭터의 확장」, 『한국극예술연구』 제61집, 2018; 김경민, 「괴물과 영웅 사이-판타지 드라마의 초능력 인물」, 『대중서사연구』 통권 53호, 2020; 이훈, 「한국형 판타지 드라마의 여성 초능력 캐릭터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12) 박명진, 「타임머신/시간여행 모티프 드라마에 나타난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 『한국극예술연구』 제47집, 2015.
- 13) 박명진, 「기계/기술적 대상에 대한 공포와 판타지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극예술연구』 제52집, 2016; 박진규, 「대중문화 콘텐츠 속 초자연적 존재 판타지의 정치적 의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0호, 2017.
- 14) 윤석진, 「판타지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구현된 '불안/혐오/경청'의 타자」, 『한국언어문화』 63권 0호, 2017.
- 15) 박상완,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사회 정의와 공동선에 관한 연구-박혜련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통권 50호, 2019.
- 16) 양승국, 「판타지 드라마에서 주체와 존재의 문제」, 『동아문화』 제55집, 2017.
- 17) 김민영, 「김은희의 추리극에 나타난 기억과 폭력의 양상 연구: TV 드라마 〈싸인〉, 〈유령〉, 〈시그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 18) 이영수, 「시간초월 접촉 모티프 영상서사의 추리 분기구조 연구」, 『인문콘텐츠』 제41호, 2016; 신지영, 「드라마 〈시그널〉의 서사구조와 의미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19) 김그루, 「시간 초월 모티프 활용 드라마에 나타난 과거의 재구성 그 의미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까지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여 기억과 정체성 문제에 대한 논의,<sup>20)</sup> 서사적 시간 구성을 통한 극적 긴장 조성의 이론적 고찰<sup>21)</sup>, 근대적 시간 개념을 해체하고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를<sup>22)</sup> 하는 다양한 연구가 있다. 그럼에도 <시그널>을 판타지 서사로 보고 권력의 폭력과 정의실현을 다룬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중국의 경우 권력의 폭력을 다룬 드라마가 2017년 이후 폭발적인 인기<sup>23)</sup>를 얻으면서 이에 관한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시공래전>처럼 판타지 서사와 결합시켜 권력의 폭력과 정의실현을 다룬 드라마가 드문 편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한국 드라마를 원작으로 한 리메이크가 가족이나 사랑 이야기<sup>24)</sup>에 국한되어 있는데 <시공래전>의 등장은 중국 리메이크 드라마의 새로운 변화를 알렸다고 할 수 있다.

TV 드라마는 동시대의 사회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시청자와 교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사회적 존재 의미를 지닌다.<sup>25)</sup> 여기에 판타지 서사를 더

20) 강경래, 「“마인드 게임” 드라마 속 새로운 문화기억 서사와 시간 경험구조에 대한 고찰 -<시그널>과 <눈이 부시게>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7권1호, 2020.

21) 오원환, 「드라마 <시그널>의 서사적 시간성과 극적 긴장의 조성에 관한 분석」,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1권 3호, 2016.

22) 고선희, 「텔레비전 장르드라마 <시그널>의 시간과 역사관」, 『한국언어문학』 제99호, 2016.

23) 1995년 권력층의 부패를 다룬 첫 드라마 <창천재상(蒼天在上)>의 성공으로 2000년대 반부패 소재로 활약을 펼친 <절대권력(绝对权力)>, <지고이익(至高利益)> 등 인기 드라마가 잇따라 방송되었다. 그러나 정책 변화 등 이유로 제한을 받은 반부패 드라마가 2004년부터 잠잠해지다 시대 변화와 맞물려 부정부패 청산을 외치는 정부에 힘입어 <인민의 명義(人民的名义)>(2017)로 부활되어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확보했다(何玉, 「中国反腐题材电视剧“微观权力”的规训逻辑分析」, 南京师范大学硕士论文, 2019, 3-4쪽 내용 참조).

24) 한국 원작 <아내의 유혹>, <가을동화>, <소문난 칠공주>, <모델> 등의 판권을 구매하고 제작한 리메이크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바 있다(黃勿傲, 「湖南卫视韩剧经典翻拍研究」, 湖南师范大学硕士论文, 2014, 1-3쪽 내용 참조).

25) 윤석진, 「영상예술시대 극예술 장르에 관한 시론-2000년대 후반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권0호, 2011, 86쪽.

한 드라마는 일종의 정치적 장치로서 다른 길을 통해 사회 정의를 모색하고자 하는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며 현실 세계의 삶 속에 억제된 욕망과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갈등을 표출하는 출구로 기능한다. 판타지 드라마가 끊임없이 현실 문제를 주목하여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는 시도는 현실 극복과 저항으로 해석된다. 드라마 속의 극복과 저항은 결핍 혹은 부재로서의 현실로부터 비롯되는데 이는 예술은 필요, 결핍, 불완전함에서부터 탄생된다는 존 듀이의 견해<sup>26)</sup>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판타지가 부재와 상실을 추구하는 욕망이라는 잭슨의 주장<sup>27)</sup>을 빌리자면 판타지 드라마는 현실에서의 결핍과 부재를 상상의 가능성을 통한 존재와 소유로 보완하고자 하는 현실 극복의 욕망이자 역설의 카타르시스와 다름없다.

판타지 드라마는 상상을 통해서라도 현실의 징환들을 치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상상 너머의 현실에 직면하고 극복하여 희망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판타지 드라마에 주목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판타지 드라마 <시그널>과 <시공래전>은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를 가능케 하는 도전이다. 이러한 연대가 오늘날 부정부패와 폭력이 넘쳐나는 불공평한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기능한다는 점은 판타지와 결합된 정의구현과 권력적 폭력에 대한 논의의 의미 및 필요성을 명확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그널>과 <시공래전>의 분석을 통해 판타지를 통한 정의실현과 폭력 재현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권력의 폭력을 둘러싼 문제적 현실과 그 사회적 근원을 파헤칠 비교연구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26) John Dewey, *Experience and Natur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29, pp.355.

27) 로즈메리 잭슨은 판타지란 사회적 맥락에 의해 생산되고 결정되는 것으로 결핍과 부재, 그리고 상실을 추구하는 욕망에 관한 문학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로즈메리 잭슨 지음,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11-12쪽.

데에 의의를 둔다.

완성도 높은 드라마로 평가되어<sup>28)</sup> 화제를 모은 <시그널>이 중국에서도 인기<sup>29)</sup>를 얻은 것은 이 드라마를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드라마는 어떤 예술 분야보다도 공공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sup>30)</sup> 중국에서 대중의 호응을 얻은 것은 핵심소재인 장기미제사건이 과거만의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와 함께 시공간의 전복을 통해 부조리한 사회를 바로잡고자 하는 현실 극복의 서사적 의미에 기인한다. 현실에서 불가능한 정의실현이 드라마에서만 해결 가능한 서사를 통해 권력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가시화시켜 인간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사유와 권력에 대한 비판을 환기한다. 이러한 대중성, 상업성, 공공성을 포착한 중국은 <시그널>(2016)<sup>31)</sup>을 원작으로 한 <시공래전>(2019)<sup>32)</sup>을 제작 및 방영했다. 3년이 흘러도 리메이크를 성사시킬 수 있는 이유는 원작의 서사적 가치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물론 판타지 장르의 유행이라는 전체적 분위기<sup>33)</sup>와 맞물리면서 점차 자유로워진 중국 언론 환경과 보다 개방적이

28) <인터뷰 '시그널' 김은희 작가>, 『매일경제』, 2016.3.18; <미드 뺨친 꼴쟁 '시그널'>, 『뉴스웨이』, 2016.3.21.

29) 중국 시청자들의 반응은 중국 대표적인 포털사이트 'https://tieba.baidu.com/f?fr=search&ie=utf-8&kw=%E4%BF%A1%E5%8F%B7signal'; https://movie.douban.com/subject/26310143/ ; https://www.douban.com/group/680742/#topics; https://www.zhihu.com/search?q=%E9%9F%A9%E5%89%A7%E4%BF%A1%E5%8F%B7&utm\_content=search\_suggestion&type=content; https://www.zhihu.com/question/46353120; https://zhuanlan.zhihu.com/p/21280581' 등 게시판의 활발한 댓글과 토론을 통해 알 수 있다.

30) 김용수, 『드라마 분석 방법론』, 집문당, 2019, 349쪽.

31) <시그널> 방송기간: 2016.1.22.~2016.3.12. (총16부작/tvN) 연출: 김원석, 극본: 김은희.

32) <시공래전(时空来电)> 방영기간: 2019.10.23.~2019.11.27. (총32부작/Tencent TV腾讯视频) 연출: 랍금, 김용, 한증광(蓝锦, 金勇, 韩曾光), 극본: 오충전, 이진, 위천일(吴忠全, 李田, 魏天一).



고 포용적 정책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과거 기피 대상이었던 민감한 사안이 판타지를 통해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시그널〉은 과거 사건을 활용하여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만연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부조리, 권력형 비리, 정경유착, 권력의 폭력과 같은 불편한 진실을 반복적으로 재현한다. 과거 고통과 책임의 재구성은 과거와의 청산을 통해 미래를 염원한다. 이를 통해 서로 얽히고 은폐된 권력 구조의 문제를 재조명하여 새로운 역사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가능성이 장기미제 사건의 해결을 토대로 중국 시청자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요인은 현실에서 매일같이 보아온 사회적 문제로부터 정의를 찾고자 하는 집단적 무의식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다. 그의 핵심은 대중이 권력의 부패와 폭력사회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바람직한 공정사회를 욕망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분노와 욕망은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함께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수반되는 그 어느 나라도 피할 수 없는 현실 문제이기도 하다.

중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문제적 현실이 어떻게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구현되었는지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한국 판타지 드라마 〈시그널〉과 중국 리메이크 드라마 〈시공래전〉에 대한 비교분석을 한다. 엄격한 검열이라는 중국 현실 상황을 고려한다면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어떤 문화적 수용과 변용이 일어났는지를 관찰하여 어떤 문화적, 체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이데

33) 2010년 판타지 드라마 〈신화(神话)〉가 CCTV8 방송 시청률의 새기록을 갱신한 뒤 2011년 호남TV의 〈궁쇄심옥(宫锁心玉)〉과 〈보보경심(步步惊心)〉 등 일련의 드라마가 폭발적 인기를 얻어 판타지 드라마의 지형을 넓혔다. 2015년 〈태자비승직기(太子妃升职记)〉가 판타지 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20년 〈경여년(庆余年)〉과 〈상견니(想见你)〉 등의 등장은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잡았다. 10년 간 판타지 드라마는 성숙하고 안정적인 장르가 되었다(张添乐, 「国产穿越题材电视剧的十年转型之路」, 『声屏世界』(19), 2021, 72쪽 내용 참조).

올로기적 문제들이 어떠한 형태의 환원도 없이 최대한 구체적인 형태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홀의 주장<sup>34)</sup>처럼 본 연구의 출발점은 각자 다른 국가와 체제 뒤에 은폐된 폭력의 정치성과 당대의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고 실제 상황에 순응하거나 저항하기 위한 시도를 밝힌다.

윌리엄스가 지적했듯이 문화는 사회적인 것으로서 특정한 삶의 방식에 대한 묘사이다. 이에 따라 문화분석은 특정한 삶의 방식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해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sup>35)</sup> 환원하자면 문화분석은 전체적인 삶의 방식에 내재하는 요소들의 관계들로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사회 조직의 본질을 발견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맥락에서 특정한 작품이나 제도의 분석은 그 조직의 본질적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며 전체조직의 일부인 작품이나 제도가 구현하고 있는 관계들을 분석하는 것이다.<sup>36)</sup> 이 분석의 목적은 그 시대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를 파악하려는 것이다.<sup>37)</sup> 감정구조란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 혹은 사회가 공유하는 가치들을 의미하며 집단적 무의식과 이데올로기의 어딘가에 위치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 시대의 대중이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집합적 성격이기도 하다.

감정구조는 예술과 문학의 형식과 규약을 사회적인 물질적 과정을 이루는 불가분의 요소들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다시 말해 그것들을 다른 사회적 형식이 아닌 특수한 유형의 사회적 형성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특수

34) 스투어트 홀 지음,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임영호 옮김, 한나래, 2007, 25쪽.

35)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5, pp.57.

36)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5, pp.63.

37) 스투어트 홀,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209쪽.

한 유형의 형성물은 또한 살아 움직이는 과정으로서 광범위하게 체험되는 감정구조의 명시적 표현(종종 제대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표현)으로 간주된다.<sup>38)</sup> 이를 통해 작품의 정치적, 이념적, 사회적 의미를 밝혀낼 수 있다. 작품 분석에 있어 윌리엄스가 지적했듯이 분리 가능한 부분을 되도록 예측하는데도 외적 해당 사항을 찾을 수 없는 일정한 요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공통된 인식의 경험이자 특정한 시기의 감정구조이다. 그것이 작품의 전체적 경험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다.<sup>39)</sup> 이는 본 연구의 드라마 분석에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건분석을 주축으로 하여 작품이 놓여 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 사건의 내면과 사건 간의 대응관계를 포착한다. 드라마의 서사적 의미를 통찰하면서 사회적 시각을 더 하여 작품의 심층적 의미를 궁구한다. 특정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집단적 사고방식과 가치를 걸쳐 궁극적으로 표출되는 정서의 표현을 탐색한다. 드라마의 비교분석을 통해 극 중 특정 시대에 한 사회의 집단감성을 확보하여 지금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사유한다. 인간 세계에서 모든 것이 감정과 연루되고<sup>40)</sup> 감정은 세계를 파악하는 하나의 특정한 방식<sup>41)</sup>이기 때문이다. 이는 본 연구가 감정으로 접근하여 고통이라는 집단감성을 통해 사회를 파악하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드라마는 감각적 즐거움에 그치지 않고 특정한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지기도 한다.<sup>42)</sup> 이러한 정서적 반응은 드라마에 내재된 감정구조에

38)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193쪽.

39) Raymond Williams and Michael Ostrom, *Preface to Film*, London: Film Drama Limited, 1954, pp.21-22.

40) 잭 바바렛 엮음,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옮김, 이학사, 2009, 9쪽.

41) 장폴 사르트르, 『감정이론을 위한 스케치』(제니퍼 로빈슨 지음, 『감정, 이성보다 깊음』, 조선우 옮김, 북코리아, 2015. 20쪽에서 재인용).

42) 김용수, 『드라마 분석 방법론』, 집문당, 2019, 362쪽.

서 비롯된다.

드라마는 현실의 허구적 재연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가치체계를 보여주는 것<sup>43)</sup>처럼 드라마, 정서, 문화는 공통적으로 구성원인 대중의 일상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sup>44)</sup> 본 연구는 현실 문제를 재현한 드라마를 분석하는 데에 윌리엄스의 감정구조를 이론적 근거로 원용한다. 한·중 두 나라는 같은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장유유서, 위계질서 등 비슷한 관습을 형성해왔으며 자국 문화에 결정타를 가한 신자유주의의 시련을 겪어왔다.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결과로만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사회 안전망 해체로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문화가 비슷하게 체험되었다. 같은 이익으로 형성된 권력의 카르텔에 복종하려는 감정구조도 비슷하게 형성되었다. 사회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드라마에 이러한 감정구조가 투영된 것이 분명하다. 문화적 근접성과 정서의 유사성을 가진 한·중에서 같은 주제로 현실과 연관 지은 드라마의 비교를 통해 가치 공유 속에 공통성과 차별성을 발견하여 판타지 드라마에 내재된 공통의 감정구조로 그 이면의 문화정치학을 재조명한다. 궁극적으로 과거를 성찰하고 미래를 통찰하는 한·중의 공감 형성과 더불어 공통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안점을 둔다.

## 2. 고통과 책임의 재구성과 폭력 재현의 공통성

〈시그널〉과 〈시공래전〉은 〈표1〉-사건①과 〈표2〉-사건①을 시작으로

43)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드라마, 코미디, 토크쇼, 다큐멘터리, 광고,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113쪽.

44) 이지, 「변동하는 사회, 공진화하는 텔레비전 멜로드라마: 판타지 멜로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푸른 바다의 전설〉 〈쓸쓸하고 찬란하神-도깨비〉의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10쪽.

시공간 초월 모티프를 활용한 장기미제사건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무책임한 '경찰 상급자'(<시그널> 김범주/<시공래전> 손평도)의 잘못된 지휘 아래 사건①의 수사 방향이 틀어지면서 범인 검거에 실패한다. 피해자를 위해 분주한 정의로운 형사 주인공(<시그널> 이재한/<시공래전> 조정)이 의심 정황을 일부 발견해 경찰 상급자에게 추가조사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한다. 혼자 현장조사 나간 형사 주인공이 사건 당사자의 시체를 발견하자 무전(<시공래전> 핸드폰)으로 15년 후의 당시 사건 목격자였던 젊은 형사(<시그널> 박해영/<시공래전> 고명철)에게 알려려다 상급자의 명령을 받고 미행해온 형사 조력자(<시그널> 안치수/<시공래전> 유강생)에게 피습 당해 살해된다. 사건①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②가 발생하면서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된다.

〈표1〉 한국 원작 드라마 <시그널> 주요사건

사건/연도	개요	경과	최종결과
①김윤정 유괴 및 살인사건 /2000년 7월 29일	비 내리는 날 방과 후 어린이 김윤정이 혼자 기다리다 실종됨	김범주의 잘못된 지휘로 범인검거에 실패해 미제사건이 되는데 첫 무전으로 재수사가 시작됨	전담팀에 의해 해결된 이 사건은 과거가 바뀌면서 살아남은 이재한에 의해 진범이 체포되어 사건이 조기 해결됨
②이재한 피살 사건/2000년 8월 3일	사건①을 조사하던 중 실종된 이재한이 훗날 백골 사체로 발견됨	납치된 이재한이 사실은 폐하라는 김범주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안치수에 의해 사살되는데 죽기 전 그의 간절함으로 무전기 연결됨	무전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박해영과 차수현이 이 사실을 이재한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과거가 바뀌어 이재한이 살아남

사건/연도	개요	경과	최종결과
③경기남부 연쇄살인 사건 /1987년 12월 3일 최초의 피해자 발견	3년 동안 10명 피해 여성이 발생한 이 사건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짐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아버지가 진범인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을 살해하고 자수한 뒤 김범주의 권력으로 전담팀이 수사에서 제외됨	과거 과학수사가 미비한 탓에 미제 사건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전담팀에 의해 진범이 체포됨
④계수동 고위층 연쇄 절도사건(일명 대도 사건)/1995년 9월 2일 첫 사건 발생	검사장을 비롯한 고위층의 집이 연달아 절도피해를 당하는데 범인도 장물도 발견되지 않음	검사장 아들의 범죄은 폐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인데 이를 계기로 대규모 비리가 알려지며 그의 위증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함	전담팀에 의해 해결된 이 미제사건은 과거가 바뀌면서 이재한에 의해 진범이 체포되어 사건이 조기 해결됨
⑤홍원동 연쇄살인사건 /1997년 10월 17일 최초의 피해자 발생	10명 넘는 피해 여성이 발생한 사건인데 머리에 검은 봉투를 씌워 질식사시키고 김장비닐로 몸을 감싸는 범행 수법이 특징임	발견된 2명의 피해자를 무시한 김범주의 독단으로 사건을 조기 종결시킨 탓에 피해자 9명이 추가로 발생하는 데 훗날 9구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됨	전담팀에 의해 해결된 이 미제사건은 과거가 바뀌면서 이재한에 의해 진범이 체포되어 사건이 조기 해결됨
⑥인주 여고생 집단 성폭행 사건(일명 인주 사건)/1999년 2월	여고생이 같은 학교 남학생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데 한 소년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됨	지시를 받은 김범주가 주범인 의원 조카를 보호하기 위해 증인들을 매수해 박해영 형 박선우에게 누명을 씌워 집단 성폭행을 덮음	과거가 바뀌면서 이재한이 진범에 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 비록 박선우가 생존하지 못하지만 누명을 벗게 됨

사건/연도	개요	경과	최종결과
⑦박선우 변사 사건/2000년 2월 18일	소년원에 있다가 출소한 박선우가 변사체로 발견되는데 자살로 사건 종료됨	김범주가 사건⑥의 진범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이재한에게 넘기려는 박선우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함	김범주의 살인 증거가 이재한에게 발견되면서 자살이 아닌 타살로 밝혀짐
⑧안치수 피살 사건/2015년	안치수가 인주 병원 앞에서 피습당한 채 박해영에게 발견되다가 사망함	안치수가 사건⑦의 진상을 박해영에게 알려려다 김범주의 사주를 받은 조폭에 의해 살해되는데 김범주가 만든 가짜 증인과 증거로 박해영이 용의자로 체포됨	이재한이 사건②에서 살아남으면서 과거가 바뀌어 안치수와 조폭이 과거에서 체포됨에 따라 사건⑧이 없던 일이 됨

첫 번째 무전기(핸드폰) 교신은 과거를 망각해서 안 된다는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동시에 평범한 시민이 희생자가 된 장기미제사건의 서막을 연다. 장기미제사건전담팀(〈시공래전〉 누적사건수사팀)의 설립과 출범도 이번 계기로 성사된다. 첫 무전(핸드폰)으로 연결된 사건①과 사건②에서 수많은 고통이 파생된다. 아이가 죽었는데 범인을 잡지 못한 유가족의 고통, 과거 피해자를 도와주지 못해 스스로 가책을 느끼는 친구이자 목격자였던 젊은 형사의 고통, 정의로운 형사 주인공이 실종한 뒤 그의 행방을 찾는 가족과 동료 여형사의 고통 등 수많은 고통이 수반되어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의 삶을 파괴한다. 이렇게 고통과 트라우마를 남긴 미제사건은 한 달 개인의 문제가 결코 아닐 것이다.

사건 당일 누군가가 피해자를 향해 손을 내밀었더라면 범인은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 형사들이 상관의 명령에 암묵적으로 따르는 대신 형사 주

인공처럼 조사했다라면 피해자를 살릴 기회를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상급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형사 주인공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진실을 파헤칠 사람이 남아 있었을 것이다. 사건②가 사건①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는 간접적 원인이 되면서 유가족의 치유되지 않는 트라우마를 남긴다. 이러한 집단적 무관심을 통해 이기적이고 타자를 무시하는 권력자의 책임 외면, 권력을 악용하는 폭력과 사회적 무관심이 고통의 직접적 원인임을 알 수 있다. 이점은 두 드라마의 공통성으로 확인된다. 사회적 무관심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이기주의와 성과주의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극대화된 결과다. 신자유주의 사회가 은폐하려는 잔혹한 현실에는 고통과 책임 부재의 근원이 숨겨져 있다. 이러한 현실은 오늘날까지 여전히 존재하는 무관심과 외면, 사회적 단절과 정서적 고립, 권력의 폭력에 대해 성찰하고 억압된 징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한다. 과거의 고통과 책임을 재구성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다.

억압된 고통과 책임의 부재가 전담팀이 본격적으로 재수사를 맡은 <표 1>-사건③과 <표 1>-사건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작의 이 두 사건이 합쳐져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하나의 사건인 <표 2>-사건③으로 각색된다. 두 번째 무전(핸드폰)으로 과거에서 피해자를 구한 <표 1>-사건③과 <표 2>-사건③에서 사건이 일어날 정보를 미리 무전(핸드폰)을 통해 입수한 형사 주인공이 그 지역 일대를 순찰하다가 5차(〈시공래전〉 5차) 피해자를 발견해 무고한 희생을 막아낸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험한 일을 당하고도 살아남은 피해자는 경찰과 기자들의 끝없는 추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게 된다.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을 되풀이하게 되면서 병들어 죽게 된 것이다. 이는 심리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오랫동안 공포와 고통 속에 방치되다가 죽음으로 떠밀린 생존자를 통해 타자에 대한 무관심의 시각으로 개인과 사회로부터의 이중적 소외를 역설하면서 한-중 그



시대의 공통된 사회상을 재현한다. 무관심의 감정구조에는 이기주의로 가득한 사회현실과 집단감성을 외면하는 정부가 투영된다.

두 번째 무전기(핸드폰) 교신은 과거 죽은 피해자를 되살려 다른 시공간에 있음에도 정보교환 및 소통의 중요성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으로 무고한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두 드라마의 공통성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책임을 다하는 형사가 피해자를 구해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면 <표1>-사건⑤는 피해자를 외면한 경찰 상급자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인근 지역에서 두 명의 사망자를 발견한 형사 주인공이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을 무시한 상급자는 평범한 사람을 수사할 가치도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다. 형사팀 막내가 같은 범인에게 납치되다가 살해당할 뻔했는데도 권력자를 비호하느라 바쁜 상급자가 단순 납치로 종결시킨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해 끝내 묻혀버린다. 상급자의 외면으로 9명의 피해자가 더 발생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한 상급자가 만들어낸 고통과 희생이 낱알이 드러난다.

<표1>의 사건③과 사건⑤처럼 경찰 상급자의 민낯을 보여준 <표2>-사건③에서 아들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다쳐도 상관없는 이기적인 아버지가 자작극을 벌여 진범인 아들 대신 자신이 연쇄살인범이라고 자백하면서 감옥에 들어간다. 이를 눈치챈 형사 주인공이 상급자에게 추가조사를 요구하자 출세에만 몰두하는 상급자 역시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시킨다. 이처럼 진실을 무시한 채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느라 부실 수사하거나 개인 승진에 급급하여 조기 종결을 강행한 무책임한 상관의 모습이 두 드라마의 공통성으로 확인된다. 권력이 더 강한 자에 굴복하고 권세에 붙어 산다는 것이 그의 특징이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 복종하는 문제적 조직문화와 함께 권력의 폭력과 그 굳건한 사회구조가 확인되며 폭력

의 정치성과 사회성이 엿보인다.

〈표2〉 중국 리메이크 드라마 〈사공래전〉 주요사건

사건/연도	개요	경과	최종결과
①마소정 실종사건(马小静失踪案)/2003년	방과 후 어린이 마소정이 남자 고물상을 도와 수레를 같이 밀다가 실종됨	손핑도의 사건 강제 종료로 인해 누적사건이 된 이 사건은 첫 핸드폰으로 재수사가 시작됨	누적팀에 의해 해결된 이 사건은 과거가 바뀌면서 살아남은 조정에 의해 진범이 체포되어 사건이 조기 해결됨
②조정 피살사건(曹征被杀案)/2003년	사건①을 조사하던 중 실종된 조정이 훗날 백골 사체로 발견됨	납치된 조정이 사실은 폐하라는 손핑도의 명령을 거절하고 도망가다가 손핑도의 사주를 받은 조폭에 의해 사살되는데 죽기 전 그의 간절함으로 핸드폰 연결됨	핸드폰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된 고명철과 하군이 이 사실을 조정에게 미리 알려줌으로써 과거가 바뀌어 조정이 살아남
③여울 연쇄살인사건(浅滩连环杀人案)/1998년	여울 인근에서 9명의 피해 여성이 발생한 이 사건은 누적사건으로 남겨짐	진범인 아들 대신 아버지가 지수하고 사형 선고받아 사망하는데 추가조사를 막은 손핑도가 조기종결시킨 탓에 훗날 수법이 같은 사건이 또다시 발생함	과거 과학수사가 미비한 탓에 누적이 된 이 사건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누적팀에 의해 진범이 체포됨
④연명살인사건(续命杀人案)/1999년	부잣집이 연달아 절도피해를 당하는데 택배기사가 범인으	부잣집 중 한 명의 범죄은 폐 목적으로 벌인 자작극인데 택배기사의 딸을 죽이고 자살로 위장한 뒤 부	누적팀에 의해 해결된 이 사건은 과거가 바뀌면서 조정에 의해 진범이

사건/연도	개요	경과	최종결과
	로 지목되어 처벌됨	갓집 딸에게 목숨을 연명하며 매수된 증인이 택배 기사를 범인으로 지목함	체포되어 택배기사 무죄로 풀려남
⑤ 풍화그룹 연쇄살인사건(丰华集团连环杀人案)/2002년	집에서 습격당해 죽을 뻔한 풍화그룹 여비서가 옆집 남자인 고명철 아버지에 의해 구출되는데 범인으로 지목된 고명철 아버지가 자살하고 훗날 증인과 비서도 살해됨	풍화그룹 불법증거를 발견한 비서가 협박하려다 습격당한 것인데 이를 덮기 위해 풍화그룹 주주의 사주를 받은 사장이 조폭을 시켜 고명철 아버지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하며 증인과 비서도 살해함	과거가 바뀌면서 조정이 비서가 남긴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 비록 고명철 아버지가 생존하지 못하지만 누명을 벗게 됨
⑥ 유강생 피살사건(刘康生被杀案)/2018년	유강생이 병원 옥상에서 피습당한 채 고명철에게 발견되다가 사망함	유강생이 고명철에게 아버지 죽음의 진상을 알려려다 풍화그룹에서 보낸 조폭에 의해 살해되는데 손깡동가 만든 가짜 증인과 증거로 고명철이 용의자로 체포됨	조정이 사건②에서 살아남으면서 과거가 바뀌어 유강생과 조폭이 과거에서 체포됨에 따라 사건⑥이 없던 일이 됨

사법과 권력의 개입으로 인한 폭력의 정치성과 사회성을 보여준 <표 1>-사건④와 <표 2>-사건④에서는 고위층 아들(고위층)인 진범이 절도 자작극을 벌여 자신의 범죄사실이 담긴 동영상을 찾으려다 실패하자 절도

전과범인 택배기사를 용의자로 지목한다. 부조리한 사법제도와 부패한 권력에 의한 보복살인이 파생되며 드러난 사건 뒤에 고위층의 검은 거래가 숨겨져 있다. 누명을 쓴 택배기사가 체포되면서 딸마저 잃게 된다. 그는 감옥에 있는 20년 동안에 딸을 잃은 트라우마에 시달리다가 출소하자 복수하려 납치하는데 전담팀(누적팀) 팀장이 인질 구출하려다 폭발로 사망한다. 힘없는 가난한 사람이 희생양이 되면서 가족을 잃은 아픔과 잘못된 보복 범죄로 인한 죽음 등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공통성으로 확인된다.

가난이 죄라는 비극이 검·경 시스템을 둘러싼 책임의 부재에 기인한다. 책임의 부재는 신자유주의의 사회적 무관심에서 비롯된다. 경찰 상급자는 보신주의에 급급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하는 주인공을 무시한 채 약자를 희생시켜 사건을 무마한다. 위계질서에 신자유주의의 특징을 더한 경찰조직에서 복종만이 살길이라는 새로운 관행이 형성된다. 이기주의와 성과주의가 집단적 가치 지향이 되고 복종은 집합적 성격으로 작용한다. 틀에 잡힌 형식적이고 체계적인 신념과 가변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활발히 체험되고 느껴지는 그대로의 의미와 가치를<sup>45)</sup> 추적해야 그 시대의 말단 형사를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한이 있더라도 말단 형사들이 이를 묵인하고 체포 명령을 집행한다는 점에서 이기주의와 결과주의를 지향하는 감정구조가 발견되며 그 배후에는 잘못된 관행과 권력의 독점성이 작동하고 있다.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강하게 자리잡고 있으며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도 맹목적 복종의 감정구조가 발견된다. 이러한 감정구조는 용해된 형태의 사회적 경험으로<sup>46)</sup> 정의될 수 있다. 이는 결국 새로운 관행에서 파생된 문제적 조직문화를 지향한다. 경찰이라는 조직에 속하는 사람들이 당연하

45)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190쪽.

46)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193쪽.

게 여기고 기계적으로 행하는 일이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악의 평범성<sup>47)</sup>이 포착된다. 그들이 악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데 그들이 평범하게 행하는 일이 언제나 최악의 일을 초래할 수 있다.<sup>48)</sup> 맹목적 복종이야말로 소리 없는 폭력과 다름없다. 그 폭력으로 인해 평범한 대중의 고통과 희생이 양산된다.

다른 증거 없이 고위층의 증언만으로 용의자를 단죄한다는 점에서 검·경 시스템을 둘러싼 폭력의 정치학이 확인된다. 고위층 혹은 고위층 가족인 진범은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고 같은 죄인데도 누명을 쓴 가난한 피해자에게는 20년 형벌로 구형된다는 점에서 사람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이중기준이 작동된다. 희생양이 된 피해자가 체포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판결에 한동안 떠들썩했던 연쇄 절도사건은 문히게 되고 고위층의 검은 거래는 사실상 은폐된 셈이다. <표1>과 <표2>의 사건④는 같은 서사적 맥락으로 힘없는 자의 고통을 보여주며 부조리한 사법제도와 법의 한계를 악용하는 권력이 빚어낸 비극과 함께 검찰, 사법 등 공권력을 둘러싼 폭력의 정치학을 드러낸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대중에게 떠안겨준다는 점에서 힘없는 자들의 비참한 삶이 공통성으로 발견된다.

공권력에 의한 대중의 고통은 경찰이라는 공권력이 범죄에 직접 참여하고 진실을 은폐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표1>-사건⑥과 <표2>-사건⑤에서 경찰 상급자가 범죄에 직접 참여하거나 범죄자와 결탁하여 사건을 조작하

47) 악의 평범성(Banality of evil)은 한나 아렌트가 1963년 출간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실성이 있다. 사람들은 평범한 이유에서 악행을 범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현실을 직면하는 일이다(리처드 J. 번스타인 지음,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김선욱 옮김, 한길사, 2018, 99쪽, 102-103쪽).

48) Hannah Arendt, *Thinking and Moral Considerations*, Social Research, 38:3, 1971, pp.438.

는 공권력의 범죄와 이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사건이 모두 권력자를 비호하기 위해 약자를 희생양으로 만들어 사건을 무마한다.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던 피해자를 살해해 자살로 위장하는 데에 경찰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만들어낸 불행과 더불어 공권력의 횡포에 의한 폭력의 정치성과 사회성도 공통성으로 밝혀진다. 이처럼 부정사회 속에 발버둥쳐도 현실이 바뀌지 않아 고통받는 약자들의 집단적 무의식은 생존을 위한 저항으로 이행한다.

다른 한편으로 지배 문화가 그 자체의 대항문화를 만들어내면서 동시에 그것을 제한하기도 한다.<sup>49)</sup> 새로운 의미 체계, 가치관, 관행, 새로운 관계들이 끊임없이 창조되는 것<sup>50)</sup>처럼 약자들의 저항으로 대항문화가 형성된다. 이러한 대항문화가 시간이 흐를수록 결과적으로 그 시대 약자들의 감정구조를 지향한다. 한·중 두 드라마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약자의 보복 범죄나 결백을 입증하려다 목숨을 잃은 피해자의 불행의 내면에는 그들의 감정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사회의 무관심 속에 고립된 소외집단이 폭력에 저항하려는 감정구조이다. 이러한 감정구조에는 경찰 상급자로 대표되는 권력의 폭력으로 고통을 받는 평범한 대중의 삶이 투영된다.

사건의 대응관계를 통해 경찰 상급자가 각종 폭력을 행사해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가 권력자의 범죄증거를 가지고 있는 형사 주인공을 회유하다 실패하자 그를 제거하려 <표1>-사건②(<표2>-사건②)를 꾀하고 자신을 도와 사건 조작에 참여하다가 양심의 가책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형사 조력자를 제거하는 <표1>-사건⑧(<표2>-사건⑥)을 실행한 뒤 억울한 피해자 가족이었던 젊은 형사에게 동료로 죽인 누명을 씌운다. 고위층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상급자와 그를 따르는 부하로 이루어진 경찰이라는

49)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164쪽.

50)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177쪽.

공권력은 결과적으로 평범한 대중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데에 암묵적 공범이 된 셈이다. 권력의 폭력과 이를 둘러싼 문제적 현실을 보여준 폭력 재현에서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경찰 상급자의 특징이 발견되며 궁극적으로 이는 고통을 부른 문제적 권력 구조를 지향한다. 이러한 권력 구조는 고통의 감정구조를 나타낸다. 구조적 병폐로 인한 고통과 불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감당해야 한다는 폭력의 정치성과 사회성도 두 드라마의 공통성으로 확인된다.

〈표1〉과 〈표2〉의 사건②에서 알 수 있듯이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정의로운 형사 주인공이 있다. 그의 존재를 통해 고통과 책임을 재구성하는 또 다른 사회적 의미가 확인된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잡은 과거가 결과적으로 현재 추구하는 공정사회를 지향한다는 두 드라마의 공통성이다.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는 공평과 정의는 과거 그런 사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의미도 함축된다. 현재가 과거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행동해야 한다는 호소도 공통성으로 발견된다. 과거 사회 구조적 병폐로 인해 미완성으로 남겨진 사건이 현재 시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일종의 소망 실현이라는 판타지 서사의 가능성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과거의 고통과 책임을 다시 소환하여 문화를 재구축한다는 것이 오늘날 신자유주의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부패를 성찰하여 더 늦기 전에 바로잡기 위함이다.

시공간을 초월한 무전(핸드폰)으로 과거가 바뀌면서 죽은 형사 주인공이 되살아난다는 판타지 서사를 통한 정의실현의 욕망이 두 드라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살아 있는 형사 주인공이 여전히 권력자에게 쫓기고 있는데도 위험한 순간에 누군가와 무전(핸드폰)을 닿아 시공간을 초월한 새로운 연대가 시작된다는 열린 결말에서 환멸 속 희망이라는 공통성도 포착된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부터 폭력에 목숨을 잃은 아픔까지 점차

심해지는 폭력의 문화정치와 그 견고한 구조가 발견되며 그림에도 희망을 지향하는 공통성이 확인된다. 그 희망이 바로 판타지 서사가 전달하고자 하는 현실 극복의 욕망이자 사회적 가치 지향성과 공진하는 두 드라마의 가치 공유이다. 이러한 가치 공유가 한·중 시청자의 문화 공감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된다.

〈시그널〉과 〈시공래전〉이라는 한·중 두 판타지 드라마에서 감정구조를 비롯한 공통성을 통해 신자유주의 사회라는 큰 맥락에서 이기주의와 성과주의를 지향하는 자기중심적인 문화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제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관행이 작용하면서 폭력을 둘러싼 문제적 현실을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관찰된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를 성찰하며 오늘을 사유한다는 것이 시급하고도 중요하다. 두 드라마에서 정의로운 형사가 과거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진실을 밝히려 폭력에 저항하며 정의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는 것처럼 오늘의 우리는 현재가 과거가 되기 전에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의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람직한 사회문화와 권력 구조를 구축하는 데에 어떤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성찰할 수 있다.

### 3. 폭력의 정치학과 회피 전략을 활용한 문화변용

리메이크 드라마의 변화는 대개 두 가지 측면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중국의 문화, 사회적 환경, 정책의 영향을 받아 현지화한 문화변용이며 다른 하나는 검열에 걸리기 쉬운 민감한 사안을 회피하는 리메이크 전략이다. 먼저 과거 형사의 실수나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드러내는 전담팀의 이름부터 문화변용이 일어난다. 원작의 '장기미제사건전담팀'은 마땅히



해결해야 할 사건이 경찰의 책임으로 말미암아 미완으로 남게 된다는 뜻이 함축되는 반면 리메이크 드라마의 '누적사건수사팀'(Backlog Group)은 어쩔 수 없이 방치된 것으로 경찰 책임과 무관한 사건을 의미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차이가 중국의 정책과 조직문화에 기인한다. '집단공동책임제'라는 정책 아래 개인의 의무와 책임이 부재한 조직문화와 사회구조가 형성됨에 따라 사건 재수사의 계기가 유전자 검사 기술의 등장으로 귀결된다. 과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이유가 기술력 부족으로 전가되면서 경찰의 책임도 치환된다. 이는 미제사건에 대한 경찰 상급자의 태도로 확장된다. 원작에서 미제사건은 경찰의 치부이자 무능력으로 인식되는 반면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이런 인식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

〈표1〉-사건⑤에서 과거 범인 검거에 실패한 탓에 희생자가 9명이 추가로 발생하는데 경찰서 서장이 곧 터질 여론과 국민의 불신을 걱정하면서도 형사들의 무능을 냉정하게 지적한다(사진1 참조). 반면에 〈표2〉-사건③에서 "사람을 잘 못 잡은 건 너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니 혼자 책임질 필요가 없다. 그때 수사 방법이든 기술이든 너무 뒤떨어진 걸 인정해야 돼..."(사진2 중국어 자막 참조)라는 공안국장의 대사에서 과거의 실수를 책임지려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주관적으로 개인이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점과 객관적으로 책임 부재의 원인을 기술력 부족으로 귀결시킨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겉으로 공정해 보이는 경찰 시스템에 책임을 전가하는 문제적 조직문화가 감춰져 있다. 진범을 잡지 못한 경찰에 대한 비난과 불신이 무마되지만 문제적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일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치유도 위로도 받지 못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드라마는 현실사회에 감추어진 권력 남용과 제도적인 문제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정치적 서사로 읽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제의식 또한 시청자에게 던져진다.



사진1. <시그널> 10회



사진2. <시공래전> 10회

위의 문화변용에서 나타난 경찰의 책임이 희석되는 내용 외에도 죽음과 생명 구원에 대한 문화변용이 확인된다. <표2>-사건①에서 어린 고명철이 친구가 남자 고물상을 도와 수레를 미는 뒷모습을 목격했는데도 <표1>-사건①에서 우산으로 가려진 진범의 옆모습을 목격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는 어린 박해영(사진3 참조)과 전혀 상반된 선택을 한다. 그것이 바로 쓸데없는 일에 참견하지 말라는 어머니의 명령(사진4 중국어 자막 참조) 때문이다. 얼굴을 확실히 보지도 못하면서 신고하면 생사람을 잡겠다는 어머니의 말에 어린 고명철은 침묵을 택한다. 살인누명을 쓴 남편이 자살한 과거를 겪은 어머니가 똑같은 비극을 만들지 말자는 의도였으나 침묵의 대가로 한 생명을 구할 기회를 놓친 셈이다. 이런 역설적인 서사는 당시 중국의 언론자유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 상황을 암시하며 고통의 기억과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 한 정의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은유도 내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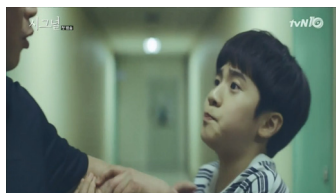


사진3. <시그널> 1회



사진4. <시공래전> 1회

〈표1〉-사건③에서 "…내가 찾아내야 해. 범행이 앞당겨진 이유를.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기기 전에 범인을 찾아내야 해"라는 박해영의 독백을 통해 그가 더 많은 희생자의 생명을 되살리고 산 사람의 고통을 덜어내려는 목적인 과거의 재구성이 지향하는 바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표2〉-사건③에서 "우리가 범인을 잡아야 하는 이유는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라 범인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을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는 고명철의 대사는 다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를 사는 사람의 감정을 더 중요시하는 중국 형사와 한국 형사의 확연히 다른 구원의 이념에서 두 드라마의 가치 차이가 엿보인다. 시청자에게 시적 정의를 전달하는 서사 뒤에는 체제와 환경이 어떻게 인간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관한 성찰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드라마로부터 일상으로의 확장으로 공소시효 관련 법안 개정이 이루어진 현실사회와 맞물리면서 공소시효에 관한 대중의 목소리를 응답하고 이를 공론화시킴으로써 사회적 영향까지 확장시키는 〈표1〉-사건①의 서사는 〈표2〉-사건①에서 찾아볼 수 없다.

위 문화변용 외에는 사회적 요인이나 민감한 정치적, 체제적 문제, 집권당의 맹점 등 검열에 걸리기 쉬운 내용을 회피하는 리메이크 전략이 가장 두드러진다. 〈표1〉-사건①에서 초등 여학생을 유괴 및 살해한 여성 범인이 〈표2〉-사건①에서 성폭행하려다 발각되어 여학생을 죽인 남성 범인으로 각색된다. 여성 진범의 쇼핑중독이 날카롭게 신경을 건드리는 불안감과 괴롭고도 숨 막히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 경제적 성장과 소비를 방임하는 정부가 소비사회에 대한 필수적인 통제를 점차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이 지출을 따르지 못한 채 과소비를 추구하는 욕망에 무감각형 자기에적 인격장애를 더함으로써 몸값을 요구하는 유괴 및 살인이 발생한다.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이러한 사회문제를 개인화시켜 접근하는 경향이 보인다. 신자유주의의 영향

을 받은 사회적 특징과 인물의 특징으로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이 인간성 내면에 비열한 야만성으로 환원된다. 이는 강력 범죄가 대중적 정서를 쉽게 자극하고 공분과 공감을 고려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검열 과정에서 사회적 요인을 지향하는 범죄 요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적 선택이기도 하다.

〈표1〉-사건①이 〈표2〉-사건①로 각색되면서 원작에서 뚜렷이 보이는 폭력의 사회성이 봉합되며 중국 교육의 문제점도 감춰진다. 남을 돕는 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교육을 받고 자란 피해 여학생이 다리가 불편한 남자 고물상을 도와 외진 곳으로 수레를 밀다가 실종된다. 이를 목격한 어린 고명철은 살인범 아버지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떻게 위험을 인지하고 자기보호를 하느냐의 교육이 결여된 전체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과 더불어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으나 범인에게 이용만 당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문제들이 남을 돕는 것과 자기보호의 딜레마를 다시금 사유하고 성찰하게 하는 사회적 명제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소홀히 여긴 가족과 학교의 행동이야말로 폭력의 사회성을 직시하지 못한 중국의 사회현실을 반영한다.

〈표1〉의 사건③과 사건⑤ 그리고 이 두 사건이 합쳐져 각색된 〈표2〉-사건③에서 진범의 살인 동기를 암시하는 서사가 사회적 요인을 회피하는 전략을 잘 설명해준다. 〈표1〉-사건③에서 진범 이진형이 어릴 적부터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외롭게 자랐다. 모정에 목마른 소년의 애정 결핍에 아들을 위해서 뭐든지 하겠다는 아버지의 지나친 부성애를 더하여 결국 타인과 어울리지 못하고 여성을 증오하는 삐뚤어진 아이를 만들었다. 약한 몸으로 취직하지 못하고 사회적 관심조차 못 받는 이진형의 뜨거운 욕망이 차가운 세상과 부딪치면서 상처만 남긴 채 여성을 향한 복수를 넘어 통제 불능한 연쇄살인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

려는 이기적인 아버지의 인간악과 무책임한 사회에서 비롯된 사회악을 비판하는 서사가 발견된다. <표1>-사건⑥에서 진범 김진우는 7살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우울증을 앓던 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면서 사회적 방임과 어머니의 학대를 당한 경험이 살인 동기로 작동된다. 어머니가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둔 채 목을 조르는가 하면 독을 탄 음식을 강제로 먹이기도 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어머니의 말과 함께 실제로 행해지는 반복적인 학대와 좁고 어두운 공간에 갇혀 숨 막히는 기억이 김진우에게 공포와 극심한 고통의 트라우마로 남겨지면서 결국 반사회적 인격으로 나타난다.

어릴 적에 불행을 겪은 두 사건의 범인은 인간적인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처럼 비인간화된다.<sup>51)</sup> 마치 사람들과의 교섭 기회를 박탈당한 것처럼 그들이 다른 사람을 상대할 줄 모르고 자신의 욕망을 통제할 수 없다<sup>52)</sup>는 점에서 두 사건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모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비극이다. <표2>-사건③에서 어릴 적 불행을 겪은 범인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사회적 책임의 서사는 찾아볼 수 없다. 여러 사람을 살해하고 계모까지 죽인 범인 장빈은 아버지가 재혼하고 어린 시절부터 계모에게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다. 패션과 명품에만 관심이 많은 계모는 의붓아들을 귀찮은 짐으로 여기며 학대를 일삼는다. 이웃 사람의 만류에도 빈번히 아이 머리를 강제로 물속에 집어넣어 화풀이한다. 어둠 속에 숨 막히는 질식감과 물에 대한 공포감이 결국 트라우마로 남겨지면서 화려한 스타일링의 젊은 여성에 대한 증오도 증폭된다.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려는 욕망을 억제할 수 없게 되면서 여성을 살해해 강물에 유기하는 연쇄살인으로 이

51) Peter L.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1963, pp.100.

52)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London, 1972, pp.210.

어진다.

원작에서 범행 동기가 이기적인 인간악, 무관심한 사회와 무책임한 정부의 사회악을 지향한다면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후자를 회피하는 태도가 보이며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전자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진형과 김진우의 비극이 가족, 정부, 사회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와 달리 장빈의 비극은 계모와 의붓자식의 가족 갈등에 초점을 맞추므로써 사회적 책임에서 분리시킨다. 완전한 자아의 단위와 구조는 전체로서의 사회적 과정의 단위와 구조를 반영한다<sup>53)</sup>는 점에서 반사회적 성격의 범인에게 자아를 분열시킨 사회와 무책임한 정부가 투영된 것이 분명하다. 누군가 한 명이 라도 손을 내밀어줬다면 범인도 죽은 피해자도 모두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박해영의 독백처럼 사회적 단절 및 정서적 고립 속에 방치된 사람이 구조가 안 되도록 만든 사회적 방임과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원작의 곳곳에 배치되어 있다. 중국에서 이러한 사회적 요인을 회피하는 효율적인 방법은 상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다. 이는 <표1>의 사건③과 사건⑤가 대폭 각색되어 <표2>의 사건③으로 묶인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표1>-사건③에서 이재한이 진범을 쫓다가 간접적으로 낸 추락사고로 범인이 하반신 마비로 입원하게 되면서 살인을 멈추게 된다. 물론 이재한은 자수하겠다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책임지려 한다. 이와 달리 <표2>-사건③에서 범인은 도망치던 중 질주하는 차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면서 살인을 못 하게 된다는 점에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sup>54)</sup>에 어긋난 설정과 경찰

53)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London, 1972, pp.144.

54)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인 '사회주의 핵심가치체제'(社会主义核心价值观)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인민을 배신하는 것을 수치로 여긴다'는 가치관이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직한 형사 주인공이 사람

의 책임을 철저히 회피한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표1>-사건⑥에서 김범주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경찰 권력을 남용하여 박해영 형을 죽인 설정이 <표2>-사건⑤에서 대기업 사장이 조폭을 이용해 고명철의 아버지를 살해한 서사로 각색된다. 형사 안치수가 <표1>-사건⑥을 함께 조작한 김범주의 지시를 받아 총으로 부하 형사를 죽인 <표1>-사건②가 대기업 사장이 조폭을 고용해 형사를 죽인 <표2>-사건②로 각색된다. <표1>-사건⑥에서 이재한이 김범주에 관한 범죄증거로 모은 자료가 검사에게 전달됐는데 나중에 이 자료가 김범주 손에 넘어간다. 검·경 간의 유착 및 커넥션, 직권남용을 드러내는 서사는 <표2>-사건⑤에서 손깡도가 택배로 증거 자료를 보내려는 조정을 미행한 뒤 택배사에서 몰래 증거를 빼돌린다는 개인 범죄로 바뀌면서 민감한 사안을 회피한 것이다.

같은 전략의 연장으로 이재한이 세상이 워낙 흉흉하다고 말하면서 짝사랑하던 여성이자 사건 피해자에게 전기 충격기를 선물하는 반면 조정은 중국에서 단속 대상인 전기 충격기 대신 사랑을 상징하는 은행 씨앗을 담은 유리병을 선물한다. 흉흉하다는 대사도 공직자로서 할 수 없는 위험한 발언으로 당연히 삭제된다. <표1>-사건③에서 용의자가 형사의 고문에 의해 간질발작으로 사망한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비난이 커지자 담당 형사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회 비판적 서사가 두드러진다. <표2>-사건③에서 다른 절도사건에 연루된 용의자가 몸에 장물을 지닌 채 체포되자 무서운 나머지 간질발작으로 사망한 것이다. 경찰 측에 담당자를 징계 처분하겠다고 발표하지만 사실상 경찰 상급자 대신 면직시킬 희생양을 고른 것뿐

---

을 다치게 하면 영웅이 아닌 악인으로 전략된다. 이러한 설정은 반(反)사회주의 핵심 가치체제를 다룬 서사가 결코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역설한다. 사회주의 핵심가치체제 관련 내용은 전자자료 'https://baike.so.com/doc/73183-77229.html' 참조할 것.

이다. 이는 한편으로 경찰 권력의 폭력성을 외부에서 해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 폭력성을 내부로 돌리는 역설적인 변용임을 밝힌다.

정치인 같은 민간한 사안에 대한 리메이크 전략은 드라마의 열린 결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원작에서 이재한을 잡으려 요양병원에 조폭을 보낸 배후가 장영철 의원이다. 반면에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불법을 저지른 풍화그룹 세 명의 주주라는 탈정치적 설정으로 바꿈으로써 원작의 사법, 검찰, 경찰, 정치인으로 복잡하게 얽힌 권력의 카르텔을 회피한다. <시그널>은 검·경 시스템 내지는 사회 전반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서사라고 한다면 <시공래전>은 검·경 시스템의 부정부패를 경찰 시스템의 한 개인이 저지른 부정행위로 탈바꿈함으로써 사회 구조적 문제와 분리시킨다. 이는 사회 안정에 가하는 영향을 감안하여 민감한 사회문제나 검찰대상에 오를 위험이 있는 내용을 계획적으로 회피하는 전략이다.

<표1>과 <표2>의 사건④에서도 같은 전략이 나타난다. 먼저, <표1>-사건④에 연루된 정치인과 검사장 등 고위층이 <표2>-사건④에서 부유층에 속하는 사업가로 각색되어 민감한 내용을 탈피함으로써 폭력의 정치성을 약화시킨다. 다음, <표1>-사건④에서 누명쓴 용의자 오경태의 딸이 한영대교 붕괴사고로 사망한 뒤 이를 계기로 사고 배후에 숨겨진 정치권과 재벌이 얽힌 대규모 비리가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표2>-사건④에서 누명쓴 송박(원작 오경태역)의 딸은 부잣집 딸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빼앗긴 것이다. 검은 거래와 부실공사에 관한 정치적 부패와 경제적 부정, 형사범죄, 안전 불감증을 둘러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연명'(續命)의 목적으로 살인을 하는 단순 형사사건으로 환원된다. 1994년에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사고라는 실화를 기반으로 재창작한 한영대교 붕괴사고처럼 송박의 딸을 목매어 죽이는 데에 실제 사건인 '충칭 붉은 옷 남아 사건'(重慶紅衣男孩事件)을 차용했으나 원작처럼 공권력의 폭력성을 서슴없이 폭로하는 서사는 찾



아볼 수 없다.

마지막, <표1>-사건④에서 봉분도 없이 무연고자로 뒷산에 묻힌 오경태의 이름을 찾아 "과거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이 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것"이라는 박해영의 독백에서 사회 비판적인 서사가 엿보인다. <표2>-사건④에서 조정의 출자로 만들어진 송박의 무덤 앞에 고명철의 내적 독백은 과거가 바뀌어도 안 바뀌는 것이 있다는 부분에 그치는 것으로 사회 비판적인 내용이 빠지면서 아무리 변해도 전과자라는 딱지가 붙은 송박이 죽을 운명이었다는 편파적이고 숙명론적 결말로 귀결된다. <표1>-사건④에서 오경태가 사람을 납치한 목적이 돈인지 아닌지를 두고 상급자의 결정을 거역한 박해영이 안치수 계장의 주먹질을 당하는 장면과 권력의 폭력을 비난하는 박해영의 대사에서 맹목적 복종의 감정구조가 지향하는 문제적 권력 구조가 재확인되는데 <표2>-사건④에서 당연히 삭제된다. 위의 문화적 변용은 사전 검열을 통과하기 위해 중국 실제 방송정책에 맞게 각색하려는 우회적인 전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에 살펴본 문화변용 전략은 경찰로 대표되는 공권력의 조직문화의 차이, 검열과 방송정책의 한계, 사회적 요인이나 민감한 정치적, 체제적 문제를 지향하는 내용에 대한 각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중국 특유의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작동 속에 집권당과 사회 안정에 가하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다.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얽힌 복잡한 범죄 정황이 한 개인의 잘못이나 실수로 단순화된다. 역설적이게도 이렇게 폭력의 정치성을 탈피하기 위한 변용은 궁극적으로 한층의 가치 공유를 지향한다. 사회악과 인간악이 이중적으로 작용하는 한국 드라마의 서사든 인간악의 단일 문제로 환원되는 중국 드라마의 서사든 결국 인간성 내면을 지향하는 잘못된 관행과 문화에서 벗어날 수 없다. 공통적으로 발견된 맹목적 복종의 감정구조도 이러한 문제적 조직문화를 가

리키고 있다. 서사 전개에서 많은 차이가 보이긴 하나 모두 경찰 상급자의 부패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정부패를 청산하려는 한·중 공통의 가치와 비전이 발견된다. 생명 구원에 대해 한·중의 서사적 차별성은 체제와 환경이 어떻게 인간성 형성을 좌우하느냐에 대한 성찰을 넘어 고통의 치유라는 공통성을 지향한다. 차별성을 통한 시사점과 가치 공유가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적 존재에 대한 깊은 사유를 유발하며 폭력 속 저항이라는 공통된 대안으로 이어진다.

#### 4. 정의실현의 상상력과 저항의 문화 공감

〈표1〉-사건③ 수사에 진전이 없어 수색하다가 박해영과의 무전으로 다음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은 이재한이 위급한 상황에서 5차 피해자를 구출한다. 무전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의 교신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명을 되살린다. 동시에 다른 시공간에 있는 주인공들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책임과 노력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한다. 경찰 상급자의 압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전담팀이 노력 끝에 피해자 혈흔과 범인의 DNA가 묻은 전기 충격기를 확보함으로써 진범이 검거되며 정의가 구현된다. 과거 이재한이 피해자에게 선물로 준 전기 충격기가 현재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상상력이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표1〉-사건⑤에서도 무전 교신으로 특정 지역에 일어날 사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이재한이 미리 탐문하다가 의심 정황을 포착하자 추가조사를 요청하더니 평범한 사람들의 죽음에 관심 없는 김범주가 이를 거절한

다. 하지만 외압에 꺾이지 않는 이재한은 사건을 계속 추적한다. 차수현과 이재한의 공조 끝에 결정적 단서가 발견된다. 이재한의 노력으로 진범이 과거에서 체포됨에 따라 이 사건은 더 이상 미제사건이 아니게 된다. 여기서 권력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와 노력이 사건을 해결하는 관건이 된다. 다른 시공간에 있는 과거 형사와 현재 형사가 정보교환하고 소통하여 함께 정의실현하는 서사가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시청자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에 감동하며 잘못된 관행과 권력의 폭력에 저항하는 주인공들의 노력에 공감한다.

〈표2〉-사건③에서 권력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실 추구에 앞장서는 조정이 고명철과의 핸드폰 교신을 통해 진범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입수하여 과거 죽었던 피해자를 되살린다. 다른 시공간에 있는 누적팀이 당시 사건의 조기 종결을 밀어붙이던 부국장 손평도의 압력을 받으면서도 〈표2〉-사건③의 재수사 끝에 증거를 확보하여 진범을 체포한다. 진실 추구하고 정의실현에 대한 가치와 폭력 속 저항의 공감은 리메이크 드라마가 원작의 서사적 가치를 계승하면서 공유하고 있는 문화 공통성의 반영이자 한층 시청자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다.

〈표1〉-사건④를 조사한 결과 여러 단서가 진범 한세규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그의 아버지 한 검사장이 경찰서에 압력을 넣어 수사를 못 하게 한다. 권력에 억눌려 있는 상황에서 흠쳐간 장물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니었다는 정보를 박해영과의 무전으로 알게 된 이재한이 수사 방향을 바꿔 한세규가 장물을 은닉한 차라는 결정적 증거를 찾아냄으로써 진범을 과거에서 체포한다. 무전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의 교신은 사건 해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뿐더러 영장 기각으로 용의자를 수사할 수 없는 난관을 극복하며 인질을 구하려다 희생된 차수현의 목숨까지 되살린다. 이처럼 시공간을 초월한 연대가 정의실현의 새로

운 가능성을 연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권력의 폭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주인공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미제사건이 해결된다. 이와 같은 서사적 맥락이 <표2>-사건④에서도 구현된다는 점은 두 드라마가 상상력을 통해서라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정의실현의 욕망과 폭력 속 저항의 공감을 보여준다.

<표1>-사건⑥(<표2>-사건⑤)에서 자신이 특권 세력에 의해 피살된다는 미래를 무전(핸드폰)으로 알게 된 형사 주인공이 다른 시공간의 젊은 형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수사한다는 저항의 서사는 사회적 의의가 크다.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진범을 잡겠다는 각오는 책임감과 의무감의 사회적 역할로 나타난다. 의무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사고를 행동으로 옮겨주는 내적 확장이다.<sup>55)</sup> 이런 의미에서 그들의 행동은 폭력사회에 분노하며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대중의 짓눌릴 수 없는 내적인 힘을 상징한다. 이 힘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기능한다. 이번 무전(핸드폰)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의 교신은 미래에 닥칠 위험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라면 끝까지 싸우겠다는 더 큰 삶의 가치를 보여줌으로써 믿음을 향해 달리는 집단적 저항 정신을 역설한다. 이것이 부조리한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에 필수적인 힘이다.

<표1>-사건①(<표2>-사건①)로 신고가 접수되어 동료들과 함께 출동하는 형사 주인공이 혼자 용의자를 조사하다가 형사 조력자에게 습격을 당하면서 <표1>-사건②(<표2>-사건②)가 발생한다. 범죄증거를 확보한 주인공이 권력자에게 큰 위협이 되어 살해당한 것이다. 주인공이 밤에 조사하던 중 조폭과 결탁한 경찰 상급자에게 납치되다가 자상을 입은 채 탈

55) Charles Horton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Charles Scribner's Sons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22, pp.367.

출하는 서사가 권력의 폭력이 난무하는 사회의 어두운 이면과 그 폭력에 저항하는 어려운 현실을 암시한다. 주인공으로 대표되는 정직하고 책임지는 사람들이 정부의 책임 부재를 떠안아 고립되고 외면당한 약자의 편에서서 정의를 지킨다. 그러나 권력의 폭력으로 그들이 고통과 희생의 대상이 된다.

이는 주인공 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겪는 집단적인 고통이자 그 시대 그들의 감정구조이기도 하다. 그들의 고통으로부터 저항을 향한 이행은 새로운 감정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현실사회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바라는 시청자의 욕망도 여기에 투사된다. 주인공이 사망한 후 그 누구도 끝까지 수사하지 않는 <표1>-사건①(<표2>-사건①)은 미제사건이 된다. 충격당할 미래를 무전(핸드폰)으로 알게 되어 미리 대비한 주인공이 결정적인 순간에 동료에 의해 구출되어 살아난다는 시적 정의가 구현된다. 이번 교신에는 현재를 사는 우리가 현재가 과거가 되기 전에 행동해야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

쫓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잡히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표1>-사건⑥(<표2>-사건⑤)을 조작한 배후를 잡겠다는 주인공의 결심은 권력으로 덮고 돈으로 입 막고 무고한 사람을 희생시켜 사건을 무마하는 권력자를 잡아야 과거도 미래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다. <시그널>과 <시공래전>이 사회적 공감을 형성시킬 수 있는 것은 주인공이 권력과 잘못된 관행에 맞서 싸우는 의지와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든 그에게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선의의 욕망, 정의와 진실에 귀를 기울이는 서사가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드라마의 서사가 문제적 권력 구조라는 폭력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다. 주인공이 선의의 욕망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폭력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공동선을 이루는 정의사회를 지향한다. 과거 주인공이 젊은 형사에게 보낸

증거 자료가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새로운 조사가 시작된다. 이는 폭력에 저항하는 힘의 전달을 상징할뿐더러 이 힘이 돈과 권력 앞에도 물러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을 암시한다.

권력자가 요양병원에 조폭을 보내 숨어있는 주인공을 잡으려는 결말에서 언론의 기능으로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하는 한편 고발자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역설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탁상 위에 고장난 무전기(핸드폰)가 갑자기 켜지면서 누군가와 연락이 닿은 듯한 열린 결말은 여전히 돈과 권력의 폭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환멸의 현실을 말하면서도 시청자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준다. 포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탱해온 저항의 정의실현은 두 드라마의 공진하는 서사적 가치를 완성시켜 한 층의 공감 확대로 이어진다. 고통에서 저항으로의 감정구조의 변화는 현실에서 해결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정의실현을 가능케 하는 판타지 서사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무전(핸드폰)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거나 과거를 바꿀 기회가 생기면서 주인공들이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정의실현을 한다. 궁극적으로 판타지 너머의 현실에 직면하여 공동선이라는 사회문화 분위기 조성을 모색한다.

두 드라마의 감정구조에서 확인된 바 폭력을 행사하는 특권 세력, 그를 비호하는 공권력의 잘못된 관행과 제역할을 하지 못하는 문제적 조직문화가 존재한다.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경찰국장의 부정부패가 사회 구조적 병폐와 분리되어 한낱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면서도 그의 심경 변화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는 서사는 비논리적이다. 개인의 부패가 각종 메커니즘을 통해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구조적 부패를 은폐하는<sup>56)</sup> 효과를 내지만 단순히 개인의 관점에서 정신을 바라보는 것이 비합리적이다. 비록 개

56) Pierre Bourdieu, *On Television*,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Priscilla Parkhurst Ferguson, the new press New York, 1998, pp.17.

인에 초점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그것은 사회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정신이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 발생하며 경찰국장의 가치관은 사회적 상황을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sup>57)</sup> 사회는 개인의 행동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 사고 및 감정까지 형성한다.<sup>58)</sup> 경찰국장의 부패는 그가 속한 사회와의 상호작용에서 형성된다. 사회가 인간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인간 자신의 의미 있는 행위가 사회라는 조직을 지탱하며 사회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맥락에는 사회가 인간을 규정하지만 사회 자체도 인간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회적 존재의 패러독스가 깔려 있다. 여기에 다소 비일관성으로 보이는 것은 인간의 왜곡 때문이 아니라 삶 자체의 역설적인 다면성 때문이라는 설명이 뒤따라야 한다.<sup>59)</sup>

무전(핸드폰) 교신으로 미제사건을 해결하는 서사에서 시간공간을 초월한 정보교환과 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가 권력이다. 그 권력은 악을 만들어낸 문제적 조직문화나 관행의 영향을 약화시킨다. 이러한 권력을 이용한 주인공들이 생명을 되살리고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더 많은 사람을 잘못된 관행이나 조직문화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의실현의 욕망과 진실 추구의 가치가 드러난다. 사회적 존재의 패러독스는 인간이 수동적인 존재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삶 자체의 역설적인 다면성을 정확히 인지한다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사회적 존재의 패러독스를 고려하여 바람직한 공정사회를 규정하려면 그 목적

57)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London, 1972, pp.133, pp.212.

58) Peter L.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1963, pp.121.

59) Peter L.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1963, pp.128-129, pp.155, pp.168.

을 향한 사회구성원 공통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함이 명확해야 한다.

개인을 사회적 환경과 분리하거나 개인이 사회의 영향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없다는 과점이 단편적인 판단이다.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행위를 하는 사람의 내부에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 사회와 연결되어 있을 때 비로소 가치가 생긴다.<sup>60)</sup> 이런 의미에서 두 드라마의 형사 주인공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항이라는 사회적 행위를 통해 부정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외면하거나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바람직한 사회가 스스로 다가오지 않는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세상이라는 목표에는 구성원의 공통인식은 물론 그러한 인식을 형성하기 위한 공동체 구축도 필요하다. 이러한 공동체 분위기가 형성되면 그 선한 영향이 각 개인을 끊임없이 노력하게 하며 동참하게 한다.

무관심의 감정구조에는 집단감성을 외면하는 정부가 투영되며 맹목적 복종의 감정구조에는 권력의 독점성이 확인된다. 고통의 감정구조와 저항의 감정구조는 문제적 권력 구조를 지향한다. 따라서 공동선이라는 사회 분위기를 구축하려면 드라마에 재현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 외에도 그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지 못한 부모와 정부 혹은 영향력 있는 계층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부와 지식, 영향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더 나은 환경을 만들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에서 벗어나 악의 근원을 근절할 수 있는 사람의 양심을 일깨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더 나은 환경은 자유방임을 뜻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회질서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오로지 사회질서

---

60) 요시이 히로야키는 막스 베버의 '사회적 행위'에 대한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서 행위에 내재된 논리, 행위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유에 주목하여 행위의 사회성을 강조한 바 있다(요시이 히로야키 지음, 『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문주 옮김, 오아시스, 2018, 26쪽).



를 통해서만 인격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규제 없는 자유는 있을 수 없다.<sup>61)</sup> 그러나 자신만의 기준으로 자유를 정의하는 권력자에게 제한 없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을 자유의 실현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sup>62)</sup> 자기중심적인 권력자의 악행에는 병적이고 이기적인 자유만 있을 뿐 규범이나 사회적 안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자유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공동선의 사회와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시그널〉과 〈시공래전〉의 공통성과 문화변용을 통해 문제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관행에서 문화 구축에 대한 재사유와 성찰이 도출된다. 개인이 속한 조직화된 사회나 공동체에 대한 의존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자아가 가지고 있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의 근원이다. 사회문화와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윤리적으로 행동하기 위해 인간이 누구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조직화된 사회의 행동 양식에 자신을 합치시켜야 한다. 개인에게 조직화된 사회의 행동 양식에 일치하는 것이 미행, 선행, 덕행이며 그 양식에 거스르는 것이 추행, 악행, 비행이다. 이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른 개인의 차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양심, 즉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윤리적 감정의 토대이다.<sup>63)</sup> 구성원들의 공통인식으로 사회를 규정하며 반대로 이상적인 비전으로 규정된 공동선의 사회가 구성원을 통제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형성시켜 선순환을 이룬다. 따라서 공평하고 공정한 사회문화 조성은 개인과 사회의 상호작용 속에 구성원들의 공통인식

---

61) Charles Horton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Charles Scribner's Sons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22, pp.420, pp.422-423.

62) John Dewey,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The Modern Library·New York, 1930, pp.7.

63)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London, 1972, pp.320.

으로 만들어진 장기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정의사회 실현은 사회 문화적 환경을 변화시키고 문제적 관행을 전복시키는 도전에 가깝다. 공진하고 공감하는 두 드라마에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도전하는 주인공들의 믿음이야말로 이러한 사회적 통념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요컨대 어떤 진지한 숙고과정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개인이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있는가와 더불어 어떤 유형의 자아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유형의 세계를 조성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삶의 과정이 매우 광범위하게 서로 다른 경로에 이르면서 결단이 필요할 순간들이 있다. 선택할 때마다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삶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소소한 결단들 중 어느 하나에만 얽매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 수많은 결단들을 겪으면서 세상을 개개인에게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든다.<sup>64)</sup> 무엇보다 소소한 결단의 축적된 힘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 공통의 인식과 정의실현을 선택할 힘이 한·중 두 드라마에서 확인된 바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출발하여 공동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한 대안과 선택의 힘은 사회구성원에게 달려 있다. 나아가 구성된 다수의 선택은 폭력을 억제하고 부패를 청산하는 공통의 대안을 지향할 것이다.

## 5. 맺음말

본 연구는 한국 원작 드라마 <시그널>과 중국 리메이크 드라마 <시공래

---

64) John Dewey,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The Modern Library·New York, 1930, pp.216-217.

전)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드라마의 문화 공유에 드러난 사회적 통념의 일치성과 문화변용에 드러난 차별성을 살펴보았다. 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권력의 폭력에 굴복하지 않고 죄를 지었으면 누구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확인하였다. 폭력사회와 부정부패에 분노하며 공평과 정의를 희망하는 대중의 내적인 힘이 안에 내재된다. 이 힘은 부패와 폭력에 저항하는 원동력으로서 대중의 욕망을 투영하며 공동선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경찰 상급자가 권력자에게 아부하고 평범한 피해자를 외면하는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 폭력 행사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사법의 한계와 사람에 따라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는 이중기준을 밝혔다. 그 배후에는 공적인 자리에 있으면서도 사적 이익을 꾀하는 이기적인 인간성과 더불어 문제적 조직문화와 잘못된 관행이 작동하고 있다. 비리 공직자를 감싸주는 세력이 바로 그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권력자나 고위층이다. 대중에 대한 그들의 외면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이기주의와 성과주의를 통해 인간의 이기심과 무관심이 극대화된 결과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대중의 불행에는 고립된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과 저항의 감정구조가 존재하며 이러한 감정구조는 권력의 부패와 폭력으로 둘러싸인 부정사회를 반영한다.

힘없는 자들의 고통, 고립된 자들의 범죄, 공직자들의 부정부패와 폭력 행사 등 <시그널>에 재현된 문제적 현실은 인간성, 책임 부재한 정부, 이를 외면한 사회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결과이다. 이와 달리 <시공래전>은 일반인의 반사회적 인격으로 인한 범죄와 개별적인 공직자의 부패로 사회적 요인과 분리함으로써 인간성 문제와 기술 문제로 귀결되는 '책임전가식 변용'을 보여준다. 한국의 <시그널>은 드라마를 통해 문제적 현실을 폭로하고 사회 구조적 병폐나 근원적 문제를 진단했다면 중국의 <시공래

전)은 일정 부분이 은유적으로 표현되지만 많은 사회 구조적 병폐와 근원적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점에서 언론자유를 둘러싼 긴장이 부분적으로 풀렸으나 여전히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각자 다른 체제 속에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의 차이가 엿보인다. 이러한 차이에는 집권당의 책임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느냐 회피하느냐의 선택이 걸려 있다.

〈시그널〉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부른 사건에 일련의 서스펜스를 더하여 독자적인 방식으로 장기미제사건을 재구성함으로써 시청자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서사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시청자가 단순히 억울한 죽음과 고통을 양산한 사회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판타지 드라마가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시도에 동참하게 된다. 〈시그널〉은 시청자와 함께 권력의 폭력과 부정사회에 의한 대중의 고통을 소환하여 과거 청산과 치유의 역할을 담당한다. 동시에 공소시효 관련 법안 개정 추진하는 등 사회 변혁을 향한 드라마의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기도 한다. 〈시공래전〉은 고통받는 대중, 책임지는 경찰, 부패한 권력자를 선택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중국에서도 같은 사회문제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공래전〉은 중국 본토의 실화를 바탕으로 사회적 트라우마나 집단기억과 관련된 실제 사건에서 사회 구조적 문제를 도출하지 않았다는 점으로 보아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청자와의 공감을 형성시켜 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킨 원작과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리메이크 드라마에서 보여지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로 인해 이러한 간격을 단축시키는 일이 쉽지 않을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시그널〉과 〈시공래전〉은 폭력을 억제하고 사회적 무관심을 극복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한다는 서사적 가치에서 문화의 공통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생명 구원에 대한 태도와 범죄의 사회 구조적 요인에 대한 비판에서

는 확연한 변화가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문화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외에도 체제적이거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따른 차별성을 간과할 수 없으며 특히 후자의 영향이 여전히 지배적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시공래전>이라는 드라마 자체의 한계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변화를 도모하는 시도와 과거 드라마에서 다루기 힘든 영역에 대한 도전은 의의가 있다. 특히 원작의 서사적 가치를 계승하는 공통성에 의한 공감과 변용을 통한 시사점을 확보하여 드라마를 통해 현실 세계를 위한 대안까지 확장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 비합리적 정책과 권력 구조를 향한 비판이 수용된다면 사회 발전 속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폭넓고 활발한 공론화를 넘어 극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비교분석을 통해 권력에 가려진 진실을 위해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서사가 <시그널>과 <시공래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권력자와 맞서 폭력에 저항하는 약자들의 고통이 여기에 투영되며 판타지를 통한 정의실현과 현실사회의 실천 가능성이 재조명된다. 나아가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적 재사유와 성찰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바꿀 수 있다는 희망과 평범한 사람들이 그 희망을 잡을 기회로 형성된 공감에서 공동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그 목표를 향한 사회구성원 공통의 인식과 노력이 필요함을 도출한다. 이는 폭력에 저항하는 공통의 대안으로 결론지어진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대안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근거로 지탱할 데이터가 결핍되었다는 한계점을 밝힌다. 그럼에도 본 연구에서 드라마를 활용하여 현실진단과 대안 모색을 위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연구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심층적 고찰 및 분석은 후속 과제로 남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시그널〉 방송기간: 2016.1.22.~2016.3.12. (총16부작/tvN) 연출: 김원석, 극본: 김은희.

〈시공래전〉(〈时空来电〉) 방송기간: 2019.10.23.~2019.11.27. (총32부작/Tencent TV) 연출: 랍금, 김용, 한증광(藍錦,金勇,韓曾光), 극본: 오충전, 이전, 위천일(吳忠全,李田,魏天一).

### 2. 논문과 단행본

강경래, 「“마인드 게임” 드라마 속 새로운 문화기억 서사와 시간 경험구조에 대한 고찰 -〈시그널〉과 〈눈이 부시게〉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7권1호, 2020, 285-320쪽.

고선희, 「텔레비전 장르드라마 〈시그널〉의 시간과 역사관」, 『한국언어문학』 제99호, 2016, 187-209쪽.

김경민, 「괴물과 영웅 사이-판타지 드라마의 초능력 인물」, 『대중서사연구』 통권 53호, 2020, 9-39쪽.

김그루, 「시간 초월 모티프 활용 드라마에 나타난 과거의 재구성 그 의미에 대하여: 2013년부터 2016까지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다혜, 「한국 텔레비전 드라마의 시간여행 모티프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김민영, 「김은희의 추리극에 나타난 기억과 폭력의 양상 연구: TV 드라마 〈싸인〉, 〈유령〉, 〈시그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용수, 『드라마 분석 방법론』, 집문당, 2019.

레이먼드 윌리엄스 지음, 『문학과 문화이론』, 박만준 옮김, 경문사, 2003.

로즈메리 잭슨 지음, 『환상성』, 서강여성문학연구회 옮김, 문학동네, 2001.

리처드 J. 번스타인 지음, 『우리는 왜 한나 아렌트를 읽는가』, 김선옥 옮김, 한길사,

2018.

- 문선영, 「TV드라마의 과학적 상상력-〈M〉, 〈RNA〉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82권 0호, 2019, 317-337쪽.
- 박노현, 「텔레비전 드라마와 환상(성): '환상적인 것'의 개념과 유형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7권 0호, 2014, 507-534쪽.
- 박명진, 「기계/기술적 대상에 대한 공포와 판타지의 정치적 무의식」, 『한국극예술연구』 제52집, 2016, 191-237쪽.
- \_\_\_\_\_, 「타임머신/시간여행 모티브 드라마에 나타난 자기 계발 이데올로기」, 『한국극예술연구』 제47집, 2015, 261-294쪽.
- \_\_\_\_\_, 「텔레비전 드라마 〈나인〉에 나타난 시간여행의 의미 연구」, 『어문론집』 제59집, 2014, 275-300쪽.
- 박상완,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사회 정의와 공동선에 관한 연구-박혜련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통권 50호, 2019, 73-116쪽.
- 박정아, 『한국 텔레비전 판타지 드라마의 재-주술화(Re-enchantment)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 박진규, 「대중문화 콘텐츠 속 초자연적 존재 판타지의 정치적 의미」,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7권 제10호, 2017, 492-502쪽.
- 백경선, 「초능력자 남성 주인공과 멜로드라마 캐릭터의 확장」, 『한국극예술연구』 제61집, 2018, 303-331쪽.
- \_\_\_\_\_,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 나타난 판타지의 유형과 의의-2010년대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58권 0호, 2018, 215-257쪽.
- 백선기, 『텔레비전 문화의 기호학: 드라마, 코미디, 토크쇼, 다큐멘터리, 광고, 뉴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커뮤니케이션북스, 2002.
- 백소연, 「OCN 수사드라마에 나타난 '환상'의 의미」, 『한국극예술연구』 제55집, 2017, 283-306쪽.
- 스튜어트 홀 지음, 『대처리즘의 문화정치』, 임영호 옮김, 한나래, 2007.
- 신지영, 「드라마 〈시그널〉의 서사구조와 의미구조 분석」,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양승국, 「생활세계의 경계 허물기와 공감의 소통형식: 판타지 드라마의 미학과 존재

- 론, 『한국극예술연구』 제58집, 2017, 89-115쪽.
- 양승국, 「판타지 드라마에서 주체와 존재의 문제」, 『동아문화』 제55집, 2017, 3-28쪽.
- 오원환, 「드라마 〈시그널〉의 서사적 시간성과 극적 긴장의 구성에 관한 분석」,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11권 3호, 2016, 187-221쪽.
- 요시이 히로아키 지음, 『일상적인 것이 가장 정치적인 것이다』, 정문주 옮김, 오아시스, 2018.
- 윤석진, 「영상예술시대 극예술 장르에 관한 시론-2000년대 후반 TV드라마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4권0호, 2011, 71-96쪽.
- 윤석진, 「판타지드라마 〈오렌지 마말레이드〉에 구현된 ‘불안/혐오/경청’의 타자」, 『한국언어문화』 63권 0호, 2017, 153-185쪽.
- 이명현, 「드라마 〈도깨비〉의 융합적 상상력과 판타지」, 『문학과영상』 제18권 제2호, 2017, 295-315쪽.
- 이승현, 「텔레비전드라마의 국민국가에 대한 전근대적 ‘판타지」」, 『한국극예술연구』 제59집, 2018, 191-217쪽.
- 이신영, 「차원 이동 모티프 드라마 〈W〉 연구」, 중앙대학 석사학위논문, 2017.
- 이영수, 「시간초월 접촉 모티프 영상서사의 추리 분기구조 연구」, 『인문콘텐츠』 제41호, 2016, 99-121쪽.
- 이훈, 「한국형 판타지 드라마의 여성 초능력 캐릭터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 임영호 편역,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한나래, 1996.
- 잭 바바렛 엮음, 『감정과 사회학』, 박형신 옮김, 이학사, 2009.
- 제니퍼 로빈슨 지음, 『감정, 이성보다 깊은』, 조선우 옮김, 북코리아, 2015.
- 조미영, 「시간여행의 이중 서사가 갖는 의미 양상 연구-드라마 〈눈이 부시게〉를 중심으로」, 『배달말』 65권 0호, 2019, 383-411쪽.
- 츠베탕 토도로프 지음, 『환상문학 서설』, 최애영 옮김, 일월서각, 2013.
- 캐스린 흠 지음, 『환상과 미메시스』, 한창엽 옮김, 푸른나무, 2000.
- 텔레비전드라마연구회 지음, 『텔레비전드라마, 판타지를 환유하다』, 소명출판, 2020.
- 허은, 「판타지 드라마 스토리텔링의 특성: 판타지 구성요소와 내러티브 전략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과학』 31권1호, 2015, 7-34쪽.



- 张添乐, 「国产穿越题材电视剧的十年转型之路」, 『声屏世界』(19), 2021, 72-73.
- 何玉, 「中国反腐题材电视剧“微观权力”的规训逻辑分析」, 南京师范大学硕士论文, 2019.
- 黄勿傲, 「湖南卫视韩剧经典翻拍研究」, 湖南师范大学硕士论文, 2014.
- Charles Horton Cooley,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Charles Scribner's Sons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922.
- George Herbert Mead, Mind Self and Societ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Ltd., London, 1972.
- Hannah Arendt, Thinking and Moral Considerations, Social Research, 38:3, 1971.
- John Dewey, Experience and Nature, London George Allen & Unwin, Ltd, 1929.
- \_\_\_\_\_, Human Nature and Conduct: An Introduction to Social Psychology, The Modern Library·New York, 1930.
- Peter L. Berger, Invitation to Sociology: A Humanistic Perspective, Anchor Books, a division of Random House, Inc., New York, 1963.
- Pierre Bourdieu, On Television, Translated from the French by Priscilla Parkhurst Ferguson, the new press New York, 1998.
- Raymond Williams,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5.
- Raymond Williams and Michael Orrom, Preface to Film, London: Film Drama Limited, 1954.

### 3. 기타자료

- 〈인터뷰 '시그널' 김은희 작가〉, 『매일경제』, 2016.3.18.
- 〈미드 뽑힌 꿀잼 '시그널'〉, 『뉴스웨이』, 2016.3.21.

## Abstract

The Cultural Politics of Justice and Violence Reproduced  
in Fantasy Dramas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Signal〉 and  
〈Spatiotemporal call〉

SUN CHEN(Yonsei University)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violence of various kinds and the realization of justice in the fantasy drama that reproduced the problematic reality of violence in both 〈Signal〉 and Chinese remake drama 〈Spatiotemporal call〉. It focuses on the cultural commonality and transformation surrounding narrative so that investigate the root of the problematic reality of violence. Then explore the possibility of an alternative to overcome the reality of the absence of justice and rampage of violence via solidarity to transcends time and space, which known as the social function of drama narrative beyond the system. It is hoped that fill the gap in between Korea and China about analyzing reproduced the violence of power in the medium of drama by revealed the source of the power violence in the problematic reality of comparative research.

Through reconstructing the past violence and the absence of responsibility, together with the suffering of life that resists the violence expressed in long-term unsolved cases, this study explores the cultural politics of structural violence and meanwhile catch the repressed public voice and the social meaning. By means of comparatively analyzing of the narratives in Korean and Chinese dramas, it investigates the cultural commonality and avoidant cultural transformation and explores what political, cultural, and ideological backgrounds that they came from. Further, it has an insight into the inner characteristics of human nature and reveals the deep cultural implication of a pursuit of truth against the

tyranny of power. It re-examines the possibility to resist violence in reality via that fantasy of transcending time and space achieved justice. Ultimately, it is meaningful that rethink about the cultural sharing and sympathy of both Korea and China by introspecting the past and seeking the future, so that attempt build a common alternative for the aim of fairness and justice.

**(Keywords: fantasy, 〈Signal〉, 〈Spatiotemporal call〉,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violence, commonality and transformation, avoidant cultural transformation, cultural politics, justice)**

■ 논문투고일 2023년 1월 6일  
논문심사일 2023년 1월 27일  
수정완료일 2023년 2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6일